

4 번째의 긴급사태 선언(8 월 2 일~31 일)에 따른 시장님 메시지(안)

히라카타시 시장인 후시미 다카시 입니다.

국가는 8 월 2 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따라 오사카부를 비롯하여 수도권 3 현에 대해 새롭게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습니다. 기간은 8 월 31 일까지로 오사카부로는 6 월 20 일에 해제된 이래로 이것이 4 번째가 됩니다.

부는 선언을 받아 부내의 음식점에 대해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후 8 시까지의 단축 영업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이벤트에 대해서도 관객의 수용을 50% 또한 5000 명 이하 오후 9 시까지 개최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 시에서도 8 월 2 일부터의 긴급사태 선언 기간 중 시의 소관 시설은 개관 시간을 오후 8 시까지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이벤트에 대해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오사카부와 같은 제한 조치를 실시해 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급격한 감염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루당 신규 감염자수는 지난달말에 처음으로 만명을 넘어 오사카에서도 1000 명이 넘는 감염자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위 “제 5 파”는 젊은 세대가 다수 감염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오사카부로는 20 대부터 30 대로 감염자수 전체의 약 반수를 차지해 또 중증화하고 있는 쪽의 약 6 퍼센트가 30 대부터 50 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감염해 버리면 중증화하는 우려나 중요한 가족에게 감염을
펼쳐 버리는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거듭되는 선언의 발령과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적절한
감염 대책을 계속하는 행동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이 이상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 불요불급의 외출 자속 및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등의
바이러스를 펼치지 않는 감염 대책의 철저하시길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공급량의 감소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등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고령자의 접종은 당초의 예정대로 7 월 말까지
70 퍼센트 이상 쪽으로 2 회의 접종을 끝내 주실 수 있었습니다.
8 월부터는 50 대의 쪽의 예약 접수도 스타트해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의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약 개시일 등은 결정 나름대로 히라카타 시의 홈페이지나
공식 SNS 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어 열사병에도 조심해 주세요.
괴로운 날들이 계속됩니다만 힘을 합해 넘어 갑시다!

레이와 3년 8월 3일

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